

度柳翠 고사의 장르별 수용 양상 고찰

김태홍* · 천대진**

【목 차】

1. 들어가며
2. 度柳翠 고사의 源流와 傳承
3. 잡극과 소설의 구성과 내용
4. 주제사상
5. 나오며

【초록】

본고는 이수경의 원 잡극 「도류취」와 풍몽룡의 명대 소설 「월명화상도류취」를 통해 잡극과 소설이라는 두 장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도류취 고사가 민간전설에서 잡극과 소설로 발전해 나간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도류취 고사가 주로 수용된 잡극과 소설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각 장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은 불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색채를 담고 있지만 잡극 「도류취」는 일반대중들에게 연극의 형식으로 불교의 교리도 선양하고 오락적 요소도 제공했던 작품임에 반해, 소설은 파계승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불교의 금욕과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나 다분히 명대 독서인의 흥미를 끌기 위한 상업적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라 평할 만하다.

중국 전통문학의 주도권이 소설과 희곡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남송 이래로 소설과 희곡은 늘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각자의 창작에 자양분이 되어 중국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핵심이었다. 따라서 두 장르 간 교차연구내지는 결합연구는 중국 근·현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키워드】 도류취, 월명화상도류취, 이수경, 풍몽룡, 잡극, 의화본소설.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duihong88@naver.com)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wangcang@daum.net)

1. 들어가며

元代の 대표문학 장르인 잡극은 북방민족의 ‘曲’이 주가 되어 宋代의 戲文이나 明代의 傳奇와는 색다른 구성과 체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대 잡극의 상당수는 그 소재면에서 송대의 강창문학과 연원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후 명대에 이르러서는 전기나 소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전·후대에 걸쳐서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杭州의 민간전설인 度柳翠 고사를 모티브로 하여 이 민간전설들이 어떻게 잡극과 전기, 소설 등으로 시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문학 창작의 소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 민간전설의 다양한 수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송대에 성행한 도류취 고사의 원형에 대한 諸 자료들을 종합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대 잡극, 명대 전기, 명대 소설로까지 발전해 나간 변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원대 李壽卿에 의해 창작된 잡극 「月明三度臨歧柳」(이하 「도류취」로 칭함)¹⁾와 명말 馮夢龍에 의해 창작된 『喻世明言』 29卷 「月明和尚度柳翠」²⁾가 가지고 있는 장르 간 체재와 줄거리 구성 등의 수용양상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이처럼 도류취 고사의 시대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중국 민간 고사가 문학 작품 속에 수용되어 傳承된 양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향후 소설과 희곡의 장르 간 결합과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두 장르가 걸어온 문학사상의 상호 교차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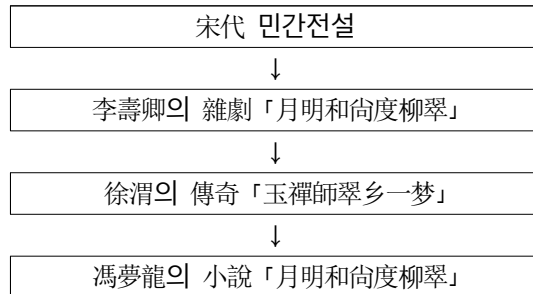
2. 度柳翠 고사의 源流와 傳承

도류취 관련 고사는 宋代 張邦畿의 『侍兒小名錄拾遺』, 宋末·元初 周密의 『武林舊事』, 明代 嘉靖 26년(1547) 전후에 나온 田汝成的 『西湖遊覽志』 속에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전하는 기록을 종합해보면, 도류취 고사는 송대 민간에서 유행한 몇 가지 민간전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류취 고사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전승되어 각각 원대 잡극, 명대 전기, 명대 소설로 재창작되면서 민간에서 향유해온 대표문학인 희곡과 소설분야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나가 되었다. 도류취 고사가 민간전설에서 문학작품으

1) 잡극 「度柳翠」의 연대와 李壽卿의 생몰은 미상이다. 이수경은 원나라 太原(지금의 山西) 사람으로 將仕郎과 縣丞의 관직을 지낸 바 있다. 희극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가 지은 잡극은 10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伍員吹簫」와 「度柳翠」 두 작품만이 전한다. 잡극의 원명은 「月明三度臨歧柳」 혹은 「月明和尚度柳翠」라고도 부르는데, 이하 본문에서는 「度柳翠」로 칭하기로 한다.

2) 『喻世明言』은 馮夢龍(1575~1646)이 宋·元代 이래의 이야기책에서 우수한 작품 40편을 골라서 『古今小說一刻』이라는 책명으로 1621년 간행한 것이다. 이후 『警世通言』(1624)과 『醒世恒言』(1627)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喻世明言』이라는 책명을 쓰게 되었고, 본고의 텍스트가 되고 있는 「月明和尚度柳翠」 또한 송대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다.

로 탄생하게 된 시간적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도류취 고사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 견해를 먼저 살펴보면, 胡士榮은 『話本小說概論』에서 이수경의 「도류취」가 민간 전설에서 제재를 가져온 것이고, 徐渭의 「玉禪師翠乡一梦」(이하 「옥선사」로 칭함)는 이수경의 「도류취」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두 잡극이 재연한 이야기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³⁾ 즉 후대에 나온 두 편의 희곡과 한 편의 소설은 杭州의 민간에서 유행한 도류취 민간전설에 근거한 것이고, 이를 후인들이 장르별로 나름의 색채를 띤 작품으로 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견해는 ‘고사의 연원이 어디에 있었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수경의 「도류취」와 서위의 「옥선사」, 그리고 풍몽룡의 「월명화상도류취」로 이어지는 교차 장르간의 수용양상과 특성, 그리고 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체제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타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도류취 고사의 연원과 관련 작품에 관한 분석으로 중국은 張則桐의 「元雜劇“度柳翠”與文字禪」(1999), 謝謙의 「論“度柳翠”雜劇的兩個系統」(2002), 李春梅의 「简析月明和尚与柳翠故事之流变」(2012), 柳磊의 「月明和尚度柳翠原流考」(2003), 項裕榮의 「『三言·月明和尚度柳翠』本事考補」(2016)와 일부 종교적 분석에 관한 2·3편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는 김순희의 「중국의 탈놀이『大頭和尚』 연구」(2005)가 있는 정도이다. 도류취 고사의 원류인 민간전설을 포함하여 명대 소설에 이르기까지 세 장르가 가지고 있는 통시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먼저 고사의 내원이라 할 수 있는 杭州의 민간전설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도류취 고사는 장방기의 『시아소명록습유』와 전여성의 『서호유람지』의 기록에 전해오는 민간전설에서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⁴⁾ 송대에 나온 장방기의 『시아소명록습유』에는 총 95자로 구성

3) 胡士榮,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1980. p.548 참조.

4) 張邦畿의 『侍兒小名錄拾遺』: 舊本은 宋代 晉陽 張邦畿가 편찬한 것이다. 책 앞에 나오는 장방기의 自序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렸을 때 蓬洪公이 『侍兒小名錄』을 짓자 호사자들이 많이 전하는 것을 보았다. 王性之의 『補錄』 1권에 그 의미가 다 담겨있다. 나의 벗 溫彥幾가 다시 한 권을 얻어서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책을 보고 쓸 만한 기록이 있으면 『拾遺』라고 정리하고 晁公武의 『讀書志』와 합치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공무는 구분에 단지 朋溪先生 혹은 雲董彥遠家子弟라고 이름을 적었을 뿐 성씨를 적지 않았다. 彥遠은 바로 董道의 字이나, 그의 자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 책은 명대 상인 濬이 간행하였으나, 오로지 장방기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田汝成的 『西湖遊覽志』: 명대 산문집으로, 모두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여성은 자가 叔禾이고

된 아주 짧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五代 때 至聰禪師라고 하는 한 승려가 있었다. 祝融峰에서 10년간 수행하였고 계율과 수행이 두루 갖춰져서 어떤 유혹도 통하지 않았는데, 하루는 산을 내려와 길가에서 紅蓮이라는 여인을 만나 일순간 마음이 동하자 그녀와 통정하여 즐겼다. 다음날이 되어 승려는 일어나서 목욕재개하고 홍련과 함께 입적하였다. 계승으로 말한 것이 있다. ‘도가 높은 산승은 지충이라 불리었고, 십 년 동안 축융봉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네. 허리에 쌓여있던 그 많은 보리수는 홍련의 몸속으로 쏟아졌다네.’⁵⁾

상기 민간전설에서 등장하는 승려의 이름은 여타 관련 작품과는 다르나 여주인공의 이름인 홍련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고, 계율이 높은 고승이 속세의 여인과 통정한 후 결국 입적하였다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른 작품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서호유람지』에 비해 상당히 짧고, 줄거리의 구성도 승려가 홍련과 통정하고 입적한다는 범위까지만 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전여성의 『서호유람지』에 나오는 민간전설은 모두 314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아소명록습유』에 나오는 이야기의 세 배가 넘는 분량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고승과 홍련의 통정을 소재로 한 이야기 외에도, 도류취로 환생한 옥통이 後生에 제도되어 불가에 귀의하게 된 이야기가 더 가미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서호유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普濟巷 樂通普濟橋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柳翠井이 있는데, 송대에는 抱劍營이 있었던 자리다. 전하는 바로는 紹興 연간에 柳宣教라는 사람이 臨安府의 府尹으로 왔는데, 부임하는 날에 水月寺 승려 玉通이 관아로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 류선교는 이것에 불만을 품고 기녀 紅蓮을 보내 미혹한 말로 속여서 절에 들어가 투숙하고 옥통을 유혹하여 통정하도록 계락을 꾸며다. 옥통은 수행한 지 오십이 년이나 되도록 계율을 엄숙히 지켜서 처음에는 그녀를 거절하였으나, 밤이 되자 방탕해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녀와 통정을 하였다. 이후에 류부윤이 숙인 것을 알고 수치심 때문에 죽으면서 분노하여 말하였다. “내가 반드시 너의 가문을 풍비박살 낼 것이다.”

류선교는 죽었으나 유복자로 柳翠를 남겼다. 해산을 하던 날 밤 류취의 어머니는 꿈을 꾸었는데, 한 승려가 집으로 들어와서 “나는 옥통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집안이 몰락하여 타향인 임안에 머물다가 포검영에 살게 되었다. 류취는 미모와 재주가 뛰어나서 기생 악부에 이름을 올렸으나, 자연스럽게 불법과 보시하는 것을 좋아하여 萬松嶺 아래에 다리를 지어서 柳翠橋라고 이름 지었고, 포검영 안에 우물을 파서 柳翠井이라고 이름 지었다.

錢塘 사람이다. 생줄은 미상이나, 嘉靖 5년(1526)에 진사에 합격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기타 저작으로는 『炎徼紀聞』·『龍憑紀略』·『遼記』·『武夷遊詠』 등이 있다. 그가 지은 『西湖遊覽志』는 항주 서호의 명승지와 전설이나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地理志의 성격을 가진 저작이지만, 그 중에는 광범위한 역대 시인들이 호수와 산천에 대해 노래한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송·원·명대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 5) 張邦畿의 『侍兒小名錄拾遺』에 나오는 도류취 고사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五代時, 有一僧號至聰禪師, 祝融峰修行十年, 以爲戒行具足, 無所誘掖也. 夫何, 一日下山, 於道傍, 見一人號紅蓮, 一瞬而動, 遂與合歡. 至明, 僧起沐浴, 與婦人俱化. 有頌曰: 有道山僧號至聰, 十年不下祝融峰. 腰間所各積菩提水, 瀉向紅蓮一葉中.

그로부터 오래되어서 皋亭山 顯孝寺의 승려 清了가 淨慈寺 승려 如晦에게 말하였다. “옥통이 속세로 타락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마땅히 가서 그를 제도해주어야 한다.” 여회는 그리하여 탁발을 핑계로 류취를 방문하였고, 그녀에게 인과의 이치를 말해 주자 류취는 문득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회는 곧 청료를 만나게 하였고, 청료는 그녀를 위해 불법의 오묘한 진리와 유취의 원래 모습을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에는 또 호통 치며 말하였다. “28년간 기생노릇하며 죄를 짓고도 아직도 그곳에 빠져 있느냐!” 류취는 그 말에 크게 깨닫고 돌아가서 바로 화장을 지운 후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목욕재계한 후 입적하였다. 그녀의 유골이 고정산에 묻히면서 이로써 제도되었다.⁶⁾

이로 볼 때, 두 민간전설 중에서 장방기의 『시아소명록습유』의 이야기는 전여성의 『서호유람지』에 실린 이야기보다 먼저 나온 것이고, 『서호유람지』의 이야기는 『시아소명록습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이 확장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서호유람지』는 비록 명대에 나왔지만 대체로 宋代의 사실을 바탕으로 저술된 것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두 민간전설의 선후관계는 뚜렷해 보인다.⁷⁾ 또한 『서호유람지』에 실린 민간전설은 도류취 고사의 줄거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과 후생의 이야기가 함께 조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도류취 전설이 실제 인물을 토대로 전승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송말 潛說友가 쓴 『咸淳臨安誌』 권48에 나오는 ‘古今郡守表’를 살펴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다. 당시 紹興 연간의 臨安府尹에 대한 자료에는 ‘柳宣教’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권37 「井」에도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柳翠井’이란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⁸⁾ 이를 종합해 보면, 도류취 이야기는 원말 명초에 민간의 說書藝人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하였거나, 혹은 ‘월명화상이 류취를 제도하다.’라는 허구적 소재를 빌려와서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후 송말에서 元 至元 27년(1290)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周密의 『武林舊事』⁹⁾에는 「要和尚」이라는 잡극명이 나와 있고, 『무림구사』의 金院本에는 「月明法曲」이라는 잡극명

6) 田汝成 『西湖遊覽志』, 上海古籍出版社, 1980. pp.178-179에 실려 있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普濟巷, 樂通普濟橋, 又東爲柳翠井, 在宋爲抱劍營地. 相傳紹興間, 柳宣教師, 尹臨安, 屢任之日, 水月寺僧玉通不赴庭參, 宣教憾之, 計遣妓女吳紅蓮, 詭以迷道, 詣寺投宿, 誘之淫媾. 玉通修行五十二年矣, 戒律凝重, 初甚拒之, 乃至夜分, 不勝殆蕩, 遂與通焉. 已而詢知京尹所賺也, 慚愧而死, 悲曰: “吾必壞汝門風.” 宣教尋亡, 而遺腹產柳翠, 坐蓐之夕, 母夢一僧入戶, 曰: “我玉通也.” 既而家事零落, 流寓臨安, 居抱劍營. 柳翠色藝絕倫, 遂隸樂籍, 然好佛法, 喜施與, 造橋萬松嶺下, 名柳翠橋, 鑿井營中, 名柳翠井. 久之, 皋亭山顯孝寺僧清了, 謂淨慈寺僧如晦曰: “老通墮落風塵之矣, 盍往度之.” 如晦乃以化緣詣柳翠, 爲陣因果事, 柳翠幡然萌出家之想, 如晦乃引見清了, 清了爲說佛法奧旨 及本來面目, 未且厲聲曰: “二十八年煙花業障, 尚爾耽迷耶.” 柳翠言下大悟, 歸即謝鉛華, 絕賓客, 沐浴而端化. 歸骨皋亭山, 從所度也.

7) 田汝成, 『西湖遊覽志』, 上海古籍出版社, 1980. p.303의 ‘西湖遊覽志後跋’ 참조.

8) 『咸淳臨安誌』 93권(浙江巡撫采進本)은 송말 원초에 潛說友가 편찬한 책이다. 잠실우는 자가 君高, 處州 사람이다. 宋 淳祐 甲辰년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咸淳 庚午년에 中奉大夫가 되어 戶部尚書를 맡았으며, 臨安軍府事를 주관하고 縉雲縣 開國男으로 봉해졌다. 당시에는 賈似道の 권세가 강하여 잠실우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영합하여 득세할 수 있었다. 前15권은 행적과 공필의 일들을 주로 기록하였고, 16권부터는 府志를 기록한 것이다. 謝謙 「論“度柳翠”雜劇的兩個系統」, 清華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北京, 2002年 5期. 참조.

9) 周密의 『武林舊事』는 元 至元 27년(1290)이전에 간행되었고, 南宋의 도성이었던 臨安의 풍모를 추억하기 위해 쓰인 저작이며,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무림구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잡극은 모두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원형을 확인할 길은 없다.¹⁰⁾ 다만 이러한 문헌적 기록을 통해서 도류취 고사가 송말에 이르러 잡극으로 무대에 상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도류취 관련 잡극의 성행이 송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적어도 송말부터는 도류취 고사가 하나의 온전한 문학작품으로 탄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원대에 접어들어서는 원대를 대표하는 작가 王實甫가 「도류취」를 잡극으로 창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미 산실되었고, 이수경이 도류취 고사를 「월명화상도류취」라는 제목으로 각색하여 일반대중에게 선보였다.¹¹⁾ 앞서 말한 『무림구사』의 기록이나 왕실보의 잡극과 같이 이수경의 「도류취」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작품이 존재했었다는 문헌적 기록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전하는 최초의 도류취 관련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이수경의 「도류취」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이수경의 「도류취」는 『서호유람지』에 나오는 전생과 후생 이야기 중에서 후생의 이야기만을 각색하여 잡극으로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뒤이어 나오는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명대에 이르러 서위가 「옥선사」를 창작함으로써 이수경의 「도류취」를 이어 또 하나의 희극 작품을 탄생시켰다. 서위의 여타 작품과 마찬가지로 「옥선사」는 한 바탕 해학적인 놀이마당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극의 분위기는 승려와 기녀 두 사람의 對唱과 對話가 유머 있게 전개되고, 기지가 넘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서 듣는 청중들을 매료시킨다. 謝謙은 “서위의 극 속에서는 옥통이 류씨 집안에 환생하여 기녀로 타락하고, 월명화상이 그 전신을 알고 깨닫게 하여 해탈하게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희극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¹²⁾ 희극적 요소에 대한 예는 흥련이 옥통선사를 유혹하는 장면을 들 수 있는데, 『서호유람지』에서는 단지 ‘기녀 오흥련을 보내서 미혹한 말로 속여서 절에 들어가 투숙하고 옥통을 유혹하여 통정하도록 계락을 꾸몄다.’¹³⁾는 몇 마디로만 묘사되어 있는 반면, 서위의 「옥선사」에서는 이 부분을 1출로 확대하여 그 비중을 더욱 극대화하였다.

이후 明末 嘉靖·隆慶 연간에는 吳士科가 서위의 「옥선사」를 바탕으로 「紅蓮案」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은 전하지 않고 줄거리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이 『曲海總目提要』에 전한다.¹⁴⁾ 또한 서위를 작품 속 등장인물로 설정하여 그의 비극적 인생을 희극으로 귀결시킴으로써 대체로 작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⁵⁾

明末 天啓 연간(1621년 정도로 추정)에 이르러 풍몽룡은 『유세명언』을 집록하였는데, 여기에 「월명화상도류취」라는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소설은 줄거리 구성과 인물형상으로 살펴볼 때 대체로 『서호유람지』의 민간전설과 일치하고 있고, 314자였던 민간전설이 4000여 자로 확

10) 四水潛夫(周密) 輯, 『武林舊事』, 西湖書社, 1981. 34쪽 참조.

11) 陳志國, 「論『玉禪師』的悲劇意蘊」, 『荷澤學院學報』, 山東師範大學, 2001年 第3期. 참조.

12) 謝謙, 「論“度柳翠”雜劇的兩個系統」,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第5期. 참조.

13) 田汝成, 「西湖游覽志」, 浙江人民出版社, 1980. “計遣妓女吳紅蓮, 詭以迷道, 詣寺投宿, 誘之淫媾.”

14) 董康, 『曲海總目提要』, 人民文學出版社, 1959 참조.

15) 謝謙, 「論“度柳翠”雜劇的兩個系統」,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第5期. 참조.

대되면서 소설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전생에 옥통과 홍련이 통정하고 입적한다는 줄거리 구성은 물론, 민간 전설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불도를 널리 알리는 고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淸了의 형상은 소설에서 월명화상으로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청료가 여회를 류취에게 보내서 먼저 자신에게 찾아오게 하는 과정 또한, 소설에서는 월명화상이 범공주지를 류취에게 보내서 찾아오게 하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소설은 전후생의 구성면에서 서위의 「옥선사」와는 일치하나, 후생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이수경의 「도류취」와는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풍몽룡의 소설 중에는 기녀 홍련이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 바로 『유세명언』 제30권 「明悟禪師趕五戒」다. ‘명오선사가 오계선사를 쫓아가다’는 제목의 이 소설의 전반부에는 明悟禪師·五戒禪師·홍련이라는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작품은 홍련과 관련 있는 민간전설의 변형적 창작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이외에도 明末에서 淸初까지 간행된 「月明和尚度柳翠傳」(『繡谷春容』), 「紅蓮女淫玉禪師」(『燕居筆記』), 「柳府尹遣紅蓮破月明和尚記」(『燕居筆記』) 등의 화본 소설과 필기소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고금소설』의 「월명화상도류취」와 내용상 대동소이하여 본고는 『유세명언』의 「월명화상도류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明末 淸初에 나온 소설을 끝으로 더 이상 도류취 고사와 관련한 문학작품은 찾아볼 수 없으나, 류취라는 이름은 송대 이래로 계속해서 화류계의 기생의 이미지로 문학 작품 속에 인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西遊記』에서 보인다.

여자요괴가 말하였다. “저에게는 베개가 남고 이불은 한가한데 어찌하여 같이 주무시지 않으시나요?” 삼장이 말하였다. “저는 머리를 깎았고 서로 가는 길이 다른데 어찌 잠자리를 같이 한답니다!” 요괴가 말하였다. “저는 그 옛날 柳翠翠가 되고 싶습니다.” 삼장이 말하였다. “빈승은 月闍黎(月明和尚)가 아닙니다.”¹⁶⁾

이외에도 도류취 고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체 높은 관료와 고승 간의 일화가 불교관련 문헌에서 일부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唐人 韓愈와 大顚寶通禪師와의 일화다.¹⁷⁾ 당대에 대표적인 배불론자였던 한유는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玄宗에게 상소를 올렸다가 潮州刺史로 좌천당하였는데, 그 당시 조주 지역의 유명한 고승이었던 대전보통과의 만남에 대한 일화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유와 대전보통과의 일화는 한국에도 전래되어 『鏡巖集』에 그 기록이 전한다.¹⁸⁾ 다만 중국의 문헌과는 달리 그 일화가 일부 와전되어서 한유, 대전선사(대전보통선사와 동일 인물), 홍련의 세 인물 간의 일화로 구성되어 있고, 한유가 홍련을 시켜서 대전선사를 유혹하게 하나 결국 한유가 대전선사에게 교화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도류취 고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나 『경암집』을 쓴 경암은 이 일화가 『傳燈錄』에 수

16) 吳承恩 『西遊記』 人民文学出版社 1995의 第55회에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女怪道: “我枕剩衾闲何不睡?” 唐僧道: “我头光服異怎相陪!” 那個道: “我願作前朝柳翠翠.” 這個道: “贫僧不是月闍黎.”

17) 한유와 대전보통에 관한 일화는 『祖堂集』 제5권, 『五燈會元』 제5권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

18) 『鏡巖集』은 조선시대에 鏡巖 應允(1743-1804)이 지은 문집으로서 여러 가지 시문과 일화를 통해 사대부와 禪僧 간의 교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헌이다. 조상현, 「『鏡巖集』에 나타난 유불교류관(儒佛交流觀)의 특징」,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2집, 2015 참조.

록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정작 『전등록』에는 이 일화가 전하지 않고, 대전보통선사에 대한 일화만 전하고 있다. 따라서 경암이 『경암집』을 집필하면서 새로운 이야기의 변형 내지는 확장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증할 방법이 없으나, 도류취 고사 혹은 홍련 고사와 관련하여 한국 전래와 변형에 대한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항주 민간전설에서 전래되어 온 도류취 고사는 송말 원초에 잡극으로 무대에 올랐고, 명대에 이르러서는 잡극의 새로운 형식인 전기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같은 명대 말기에 이르러 단편소설로도 창작됨으로써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문학소재였음을 알 수 있다.

3. 잡극과 소설의 구성과 내용

이수경의 원 잡극 「도류취」와 풍몽룡의 명대 단편소설 「월명화상도류취」는 기본적으로 송대 민간전설에서 전래되어 온 홍련과 류취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각 잡극과 소설로 탄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송대 민간전설에서는 홍련과 승려의 파계이야기와 류취와 월명화상 간의 제도이야기라는 두 갈래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수경의 잡극과 풍몽룡의 소설은 그 줄거리의 선택범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두 작품은 각 장르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각 문학 장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수용과 변형을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 두 장르 사이의 플롯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잡극과 소설의 내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해보으로써 도류취 고사의 장르간 수용양상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원 잡극 「도류취」는 남해 관음보살 淨瓶 안의 버들가지가 杭州 거리의 기녀인 류취로 환생하였는데, 30년 후 천상에서 내려온 羅漢 月明和尚이 그녀를 제도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월명화상이 류취를 세 번 제도하다(月明三度臨歧柳)’라고도 부르는데, 월명화상이 세 차례에 걸쳐 버들가지였던 류취를 제도시켰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제목이다. 이를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자-

㉠ 관음보살이 선재동자를 데리고 등장하면서 불가의 시를 읊고는 정병 안의 버들가지가 먼지에 더럽혀져 그 죄로 항주의 포감영 거리의 기녀 류취로 태어나 전생의 악업을 씻은 지 30년 후 월명에게 제도를 받고 교화된다는 설명을 하고 퇴장한다.

㉡ 포감영 거리의 장씨는 딸 류취와 돈 많은 사위 우원외가 있고, 남편 류씨의 10주기 제사에 스님을 모시러 호정산 현호사에 간다.

㉢ 현호사 장로가 행자승을 데리고 장씨집에 채를 올리러 가는데 스님이 한 명 모자라자 행자는 주정뱅이 화상인 월명화상을 데려 간다. 월명은 버드나무 가지에 달을 매고 술과 고기를 먹는 기이한 행동을 한다.

-제1절-

㉔ 월명화상은 제사에 술과 고기가 있는지를 묻고 류취의 집에서 재를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류취와의 혼인을 위해서 꼭 참석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서천 16대존 나한 월명존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류취를 제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얘기한다.

㉕ 장로와 행자승이 염불을 외고 류취는 대문 앞에 나가 모자란 1명의 승려를 기다리다 대문 앞에 넘어져 있는 월명을 발견한다. 월명은 류취임을 알고는 삶과 죽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자신을 따라 출가할 것을 권유한다. 또 류취를 부처님의 제자라 하면서 두 번째 출가할 것을 권유하고, 세 번째로 생과사를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출가를 권유한다. 그러나 류취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돈도 벌어야 한다며 거절한다.

-제2절-

㉖ 류취는 꿈속에서 배꽃 고양이로 변하는 꿈을 꾸는 것을 알고 있는 월명을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그와 차를 마시게 된다. 월명이 그녀에게 머리를 깎기를 권하지만 류취는 출가를 거부하다가 잠이 든다.

㉗ 꿈속에서 염신이 우두귀력을 데리고 인간세상에서 聖僧 나한을 더럽혔다는 죄로 류취를 참하려 하자, 월명은 류취에게 속세를 벗어나 수행을 한다면 구해줄 것이라 얘기한다. 염신에게 류취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염신은 류취를 참한다.

㉘ 놀라 깨어난 류취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깨닫고는 월명의 뜻에 따라 출가를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가족들과의 작별을 원한다.

-제3절 -

㉙ 장씨와 우원외는 딸이 출가를 하게 된 것을 알고 집에서 류취를 기다리고 월명은 류취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변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㉚ 장씨가 월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려하자 류취는 시간이 이르다면서 월명과 바둑을 두고, 주사위를 놀고, 공차기를 한다. 월명은 놀이에 빚대어 류취에게 불심을 공고히 하도록 설법을 한다.

㉛ 장씨의 권유에 하룻밤을 묵게 된 류취는 집 안에 숨어 있던 우원외와 상봉하려 한다. 류취의 행동을 알아차린 월명은 그녀를 꾸짖고 장씨와 작별을 고하게 하고는 그녀를 데리고 절로 돌아간다.

-제4절-

㉜ 월명이 고명한 승려임을 알아차린 현효사 장로는 월명을 초청하여 설법을 열고 행자와 더불어 선문답을 주고받는다. 류취는 탁발을 나시고 월명은 참선을 하러 간다.

㉝ 우원외가 다시 류취에게 설득을 하지만 출가를 결심한 류취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돌아간다. 월명이 불법으로 류취를 제도하자 류취는 참선을 하다가 입적한다. 월명이 제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장로와 행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㉞ 관음은 류취를 인간 세상에 보내서 전생의 업을 갚도록 벌을 내리고 월명으로 하여금 제도한 얘기를 하자, 류취는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면서 절을 한다. 관음이 마지막으로 설법을 하고 모두 영산회로 떠난다.¹⁹⁾

잡극은 월명화상이 류취를 제도하는 과정을 설자와 4절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설자에서

19) 臧晉叔 編, 『元曲選』, 中華書局, 北京, 1979.

는 류취의 전생을 설명하고 월명이 등장한다. 1절은 월명과 류취의 만남 그리고 출가를 권유한다. 2절은 류취를 꿈속으로 유인하여 염신을 등장시켜 生과 死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첫 번째 제도를 한다. 3절은 월명이 류취의 가족과도 정을 끊도록 하며 두 번째 제도를 한다. 4절은 월명의 설법에 류취는 참선과 동시에 입적을 하면서 세 번의 제도를 마친다.

잡극과 달리 소설 『월명화상도류취』의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반부는 오홍련이 림안부로 새로 부임한 류선교의 사주를 받아서 옥통화상을 유혹하여 색계를 범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前身이 옥통화상이었던 류선교의 딸 류취가 월명화상을 만나서 전생의 원한을 깨닫고 다시 불도에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사건의 전개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㉔ 류선교가 과거에 급제하여 림안부로 부임하던 날 水月寺 竹林峰의 스님 옥통만이 부임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㉕ 류선교는 이를 패섬하게 여겨 歌妓 오홍련을 시켜 색계로써 옥통을 파계하라고 지시한다.

㉖ 오홍련은 추운 겨울날 상복을 입고 수월사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고는 절에 하룻밤 머물도록 도인에게 부탁을 한다.

㉗ 그날 밤 오홍련은 일부러 한기에 걸린 척 하며 옥통의 자비를 이용해서 그가 머무는 선방에 들어간 후 복통을 호소하며 주지를 유혹한다.

㉘ 옥통은 홍련의 유혹에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통정하게 되고, 오홍련에게서 이 모든 것이 류선교가 고의로 꾸민 계략임을 듣는다.

㉙ 옥통은 52년 동안의 수행이 하루아침에 파계됨을 참회하고 ‘류선교의 집안을 그르치게 할 것’이라는 시를 남기고 입적한다.

㉚ 옥통이 죽는 날, 류선교의 부인 고씨는 꿈속에 화상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하고 딸 류취를 출산한다.

㉛ 시간이 흘러 류선교가 병으로 죽고 가세가 쇠하여 부인 고씨와 딸 류취는 림안부의 유흥가인 포검영에 머물게 되고 류취는 鄒主事의 첩이 된다.

㉜ 류취의 미모와 재능이 출중하여 결국 기생이 되고, 추주사는 절교를 하고 다시는 왕래하지 않게 된다.

㉝ 고정산 현효사의 주지 월명화상은 옥통선사와 불도를 닦던 벗이었기에 류취로 환생한 그를 제도하고자 한다.

㉞ 류취는 비록 창기로 타락했으나 불교와 보시를 좋아해서, 만송령 아래 류취교라는 다리를 세우고 포검영 안에 류취정을 지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불경을 읽었고 이날은 손님도 맞이 하지 않았다.

㉟ 류취는 어느 날 탁발승으로 찾아온 범공선사에게 인과와 업보에 대한 설법을 듣고, 출가하려는 마음으로 현효사의 주지 월명화상을 찾아가 인사를 드린다.

㊱ 월명은 “28년 동안 기생의 빛을 지고도 갚지 않는냐”며 첫 번째 호통을 치고,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여 돌아오라며 두 번째 호통을 쳤으며, 마지막으로 수월사로 가서 옥통선사를

찾아보라는 호통을 친다.

㉓ 월명에게 세 번의 꾸밈음을 들은 류취는 수월사로 가서 행자가 외운 계송에서 전생에 자신이 옥통선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㉔ 집으로 돌아온 류취는 목욕을 한 후, 계송 두 수를 적어 놓고 자신이 죽은 후 간직하고 있던 옷을 입관하고 고정산 아래로 옮겨가 월명으로 하여금 불살라 주기를 부탁하고는 죽음을 맞이한다.

㉕ 고씨는 류취의 죽은 사유가 남편 류선교의 잘못으로 옥통선사가 환생하여 류씨의 집안을 망치게 된 것을 알고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깨닫고서 류취를 고정산 아래에 안장을 한다.²⁰⁾

전체적으로 소설은 류선교·오홍련·옥통화상에 얹힌 전생의 이야기와 류취와 월명화상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후생의 이야기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류선교와 옥통화상 간에 얹힌 원한과 업보에 대한 인과관계와 류취가 월명화상에 의해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여 그간의 악연을 끊어낸다는 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다.

두 작품의 플롯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은 줄거리의 구성, 등장인물과 인물형상, 류취의 제도과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줄거리 구성의 차이점이다. 원 잡극에는 명 소설에서의 발단과 전개과정 즉 전반부(a)(b)(c)(d)(e)(f)(g)의 내용이 없고, 소설의 후반부(h)(i)(j)가 잡극의 설자와 1절 부분과 상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발단과 전개부분을 전생의 이야기로 흥미를 이끌어내고, 절정과 결말에 제도하는 과정을 그려내었으나, 잡극에서는 제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훨씬 많은 편폭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배경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원 잡극의 시간적 배경은 류선교의 사망 10주년으로 천상의 버들가지의 환생 30주년이며, 공간적 배경은 절강성 항주의 抱鑒營과 蒿亭山 顯孝寺이다. 이에 반해 소설은 류취의 전생인 전반부는 시간적 배경이 송대 고종 紹興 연간이고, 공간적 배경은 절강성 임안부와 수월사 죽림봉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시간적 배경이 류취의 환생 28년 후이고, 공간적 배경은 임안부 포검영(잡극과 명칭이 다름)과 고정산 현호사다.

둘째는 등장인물이다. 작품간 등장인물의 비교는 도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잡극과 소설에서 서로 다르게 등장한 인물을 살펴보자. 원 잡극에는 우원외가 류취의 남편으로 등장하였으나 류취가 출가하면서 헤어지고(㉑㉒), 명 소설에서는 류취가 추주사의 첩이 되었다가 기생이 되면서 절교하게 된다(h)(i). 류취의 어머니도 잡극에서는 장씨로 소설에서는 고씨로 서로 다르게 등장한다(㉑/h). 원 잡극에는 류취의 꿈속에 염신과 우두괴력이나 관음보살 등의 천신과 신선이 등장하여 류취를 제도하는 중간역할을 하지만(㉓㉔), 명 소설에는 범공선사가 월명의 말을 받들어 불법의 이야기를 통해 류취가 불가에 입문하고 지난날을 뉘우치도록 제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㉕). 소설에서는 원 잡극에 없는 전생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홍련과 옥통선사가 있다. 홍련은 류취의 아버지 류선교의 명으로 아름다운 미모로 옥통을 유혹하고는 옥통을 파계승으로 만드는 인물이며(b)(c)(d), 옥통선사는 52년 동안 불가에 있다

20) 馮夢龍, 『喻世明言』, 鼎文書局, 臺北, 1980.

가 하룻밤에 홍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파계를 하고 입적을 한다. 그리고는 원수를 갚기 위해 내생에 류취로 다시 태어난다(㉔f).

셋째는 인물형상이며, 그중 두 작품의 주인공인 류취와 월명화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류취는 기녀로써 용모가 수려하고 詩歌나 바느질 등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월명화상의 제도를 거쳐 전생의 죄를 씻고 佛道에 귀의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㉔/㉕). 원 잡극에서 류취는 전생에 천상의 버들가지로 있다가 먼지가 묻어 그 업으로 항주의 거리 포감영의 기생 류취로 다시 태어났다(㉖). 그녀는 효심이 지극하고 불심도 깊다. 어머니 장씨와 류취가 류선교의 기일에 현호사 스님을 불러 재를 지내는 장면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㉔㉕). 소설에서는 전생의 옥통선사가 류취로 다시 태어났다. 비록 기녀이나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믿어 기생생활에서 얻은 재산으로 류취정이라는 우물을 보시하고,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무명옷을 입고 불경을 읽었다는 대목이 등장한다(㉔). 월명화상은 불법으로 류취를 제도하려는 인물로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㉔㉕/㉖). 원 잡극에서의 월명은 16대 나한이지만 술과 고기를 먹을 뿐 아니라 여색까지 탐하려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국 류취가 불가에 귀의하고 전생의 업을 씻게 하는 중요한 인물이다(㉔㉕㉖). 반면 명 소설에서는 법공선사를 시켜 류취에게 설법을 하여 불가에 귀의하도록 하고, 류취가 전생에 행한 잘못을 호통으로 일깨워 주는 그야말로 고결하고 준엄한 고승의 인물이다(㉖).

이 두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월명화상이 류취를 제도하는 과정 즉 ‘세 번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원 잡극에서는 류취가 꿈속에서 염신과 우두괴력에 의해 죽은 후 꿈속의 일을 깨닫고 월명을 따라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이 ‘첫 번째 제도’이고(㉔㉕), ‘두 번째 제도’는 월명이 어머니 장씨와의 정을 떼고 류취를 데리고 절로 돌아가는 장면이며(㉔), ‘세 번째 제도’는 류취가 남편 우원외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참선을 하고 월명의 불법에 의해 입적을 하는 장면이다(㉕). 이와는 달리 명 소설은 류취가 법공선사의 불법 이야기를 듣고 월명을 찾아간다. 월명은 류취에게 28년간의 기생 빛에 대해 첫 번째 호통을 친다. 두 번째로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호통 치며, 세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수월사로 돌아가 옥통선사를 찾아오라며 호통을 친다. 그리고는 비로소 전생에 자신이 옥통선사였다는 깨달음을 얻고 곧 입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㉔㉕㉖). 따라서 두 작품은 세 번의 제도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과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두 작품의 구성과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다음의 표로서 정리해 보았다.

		원 잡극 「度柳翠」	명 소설 「月明和尚度柳翠」	
작가		이수경	풍몽룡	
구성		설자, 총 4절	전생	후생
배경	시간	류선교 사망 10주년, 천상의 버들가지의 환생 30년	송대 고종 紹興 연간	류취 환생 28년
	공간	절강성 항주의 抱璧營, 蒿亭山 顯孝寺	절강성 臨安府, 水月寺 竹林峰	臨安府 抱劍營, 皋亭山 顯孝寺, 淨慈寺

등장 인물		柳翠, 月明, 張氏, 牛員外, 觀音, 善才, 長老, 閻神, 牛頭鬼力	柳宣教, 吳紅蓮, 玉通	法空, 高氏, 柳翠, 鄒主事, 月明
인물 형상	류취	전생의 버들가지인 류취가 기생으로 태어나 월명의 제도를 받은 후 업을 씻은 후 불가에 귀의함.	전생의 옥통으로 홍련의 유혹에 빠져 파계한 후 입적하고 다시 류취로 태어났다가 월명의 호통으로 불가에 귀의함.	
	월명화상	서천 제16대 나한으로 류취를 제도하여 불가의 귀의토록 하지만,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여색까지 탐한 스님의 형상임.	류취의 전생에 대한 잘못을 세 번의 호통으로 깨우치게 한 고결하고 준엄한 고승의 형상임.	
제도 과정		세 번의 제도 1) 꿈속의 일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도록 함. 2) 가족과의 정을 떼고 절로 데려감. 3) 남편의 설득에도 월명의 불법에 의해 입적함.	세 번의 호통 1) 28년간의 기생 빛에 대한 호통. 2) 류취 자신의 본성에 대한 호통. 3)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수월사로 돌아가 옥통선사를 찾아오라는 호통.	

원대와 명대의 시대적 거리를 둔 두 작품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잡극과 소설은 기본적인 줄거리 구성 및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소설이 잡극에 비해 등장인물과 줄거리가 보다 확장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인물형상과 주제사상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창작 품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주제사상

두 작품은 불심을 통해 주인공 류취를 교화하여 불성을 이루도록 제도하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각각 나름의 시대적 특색을 반영하고 있다.

잡극 「도류취」는 원대 초기 吳昌齡의 잡극 『花間四友東坡夢』과 함께 대표적인 불교극으로 알려졌다. 작가 이수경은 생물이 불확실하나 元末 鍾嗣成的 『錄鬼簿』에 소개될 만큼 원대 초기 잡극작가로서 명성을 떨친 것만은 사실로 드러난다. 그는 원대 초기 작가로서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선종에 대한 지식 또한 풍부하여 「도류취」외에 또 다른 불교 잡극인 <船子和尙秋蓮夢>을 지었다. 이 작품은 당나라 선종의 고승인 德誠禪師의 수행이야기를 엮은 잡극인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도류취」는 송대 민간소설에서 그 제재를 가져오고, 해박한 불교지식을 바탕으로 민간에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한 작가가 「도류취」를 통해서 잡극의 품격을 한층 올려놓았기에 후대의 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모태로 많은 희곡과 소설을 창작할 수 있었다.

원대는 소수 민족의 통치자가 건립한 통일 정권으로, 몽골인과 색목인을 우대하는 한편 한족과 남인을 심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송대까지 이어져 왔던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 때문에 한족의 지식인들은 신분 상승의 수단인 정계 진출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지위도 상당히 낮았

다. 엄격한 차별 정책은 유가 사상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문학 사상과 활동을 자유롭게 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족 지식인들은 작품 속에 자신들의 이상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펼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번뇌를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의 힘을 통해 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그들은 문학이라는 창작을 통해서 종교적 사상을 흡수하고 세속적인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심적인 위안과 평정심, 일상 속에서 겪는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도류취」는 월명화상이라는 승려가 등장하여 불심으로써 기녀인 류취를 제도하는 과정을 곳곳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 주된 취지는 대중들에게 불법의 무한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며, 그들로 하여금 불교에 귀의하여 선을 쌓고 덕을 행하도록 권하는 데에 있다. 작가는 작품의 많은 곳에서 불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길은 종교적 색채를 담고 있는데, 이를 세 부분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첫 장면인 설자에서는 노단이 관음보살로 분장하여 무대에 오르면서 시를 읊는다. 관음보살 정병의 버들가지였다가 먼지가 묻어 벌을 받은 후 세속의 기녀로 환생한 류취가 월명화상의 제도를 통해서 다시 성불한다는 이 시의 내용은 잡극의 모든 줄거리를 압축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병 안의 버들가지가 우연히 작은 먼지에 더러워져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가서 윤회를 한 번 하게 되는데, 항주 포감영 거리의 기녀들이 사는 곳에 기녀 류취로 환생하였다네. 30년 후 묵은 빚을 다 채운 후 제16존 나한 월명이 인간 세상에 와서 류취를 교화시켜 함께 법회에 오르는구나.²¹⁾

불가에서는 중생으로 태어나기 전에 생사를 초월하여 삶도 죽음도 없다고 여기며 죽은 뒤에業에 따라 여섯 번의 생과사를 반복하는 윤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생사윤회는 자신이 지은 선과 악의 업에 따른 인과응보를 받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그 업을 소멸해야 하는 것이다. 류취는 월명화상의 도움으로 과거의 업을 소멸하고 불가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제1절에서는 효정산 현효사 장로가 류선교의 10주년 기일에 재를 지낼 때의 계송과 월명화상이 류취를 교화시키는 장면에서 역시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로념진언운) 풀리거라, 풀리거라, 원한이 풀리거라. 항주 시주 류선교 전생과 금생의 원한과 업이 풀리거라. 세심조려 경건한 마음이 발하여, 금일 부처님 앞에 풀리기를 기원하네. 나무 약사불, 약사불, 소제연수약사불, 나무소제연수약사.……(연달아 세 번 읽고 법기를 두드린다)(정말이 말한다) 류취야, 삶과 죽음의 일이 중요하니 나를 따라 출가를 하려무나.²²⁾

21) 臧晉叔 編, 『元曲選』, 中華書局, 北京, 1979의 1339쪽에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且說我那淨瓶內楊柳枝葉上偶汗微塵. 罰往人世. 打一遭輪回. 在杭州抱鑒營街積妓牆下. 化作風塵匪妓. 名爲柳翠. 直等三十年之後. 填滿宿債. 那時著第十六尊羅漢月明尊者. 直至人間點化柳翠. 返本還元. 同登佛會.

22) 臧晉叔 編, 『元曲選』, 中華書局, 北京, 1979의 1339쪽에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長老念真言雲) 解結解結解冤結. 解了杭州施主老柳前生今世冤和業. 洗心滌慮發虔心. 今對佛前求解結. 南無藥師佛. 藥師佛. 消災延壽藥師佛. 南無消災延壽藥師佛. ……(連念三聲動法器科)(正末雲)柳翠. 無常迅速. 生死事大. 跟我出家去來.

제3절에서는 월명화상이 류취와 바둑을 두고 쌍륙이나 공을 차는 과정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류취를 교화한다. 이 사이에 禪機가 계속해서 나타난다.²³⁾

(정말이 말한다) 게를 들어 보거라

(게를 말한다) 마른 해골이 동군의 손에 들렸네.²⁴⁾ 한 점의 더러움으로 지금 생애에까지 던져졌네.²⁵⁾

월명화상은 바로 해골이라는 선기를 통해 류취를 교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불성을 이룬다는 것은 ‘空’을 지향하는 것이며, 세속의 먼지가 묻은 것은 불성에 ‘汚點’을 남긴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생사의 윤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 「월명화상도류취」는 불교관련 고사의 한 전형으로서 삼언이 담고 있는 다양한 소재 중 하나이다. 명대 말엽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하였기에 사상의 규제가 느슨하고 사회 각 분야에 새로운 사조가 일어난 시기였다. 왕양명 학파의 출현으로 개성의 자유와 자아를 강조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문인들은 서정적이며 자유롭게 자기의 이상을 토로하고 개성을 표출하였다. 명말은 상품 경제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이 시기의 작가는 소설을 창작할 때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였다. 소설이 잘 팔리기 위한 첫째 조건은 시민 계층과 문인 독자층의 미적 입맛에 동시에 들어맞아야 했다. 명말 시민 계층과 문인 독서층은 다분히 세속적인 심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풍몽룡은 소재가 평범한 작품을 창작할 때는 기묘한 구상과 기이하고 복잡한 이야기나 종교적 색채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그중에서도 불교와 관련된 작품은 전대의 지괴소설이나 전기소설에서도 많이 나타났으며, 중국소설의 소재와 주제를 매우 풍부하게 만든 원천이었다. 또한 이야기에 불교의 영험을 드러내거나 혹은 교화와 포교를 목적으로 변용된 것이 많았다.

「월명화상도류취」 또한 전생과 현생 간에 얽힌 원한관계를 통해서 불교의 윤회사상과 인과응보라는 삶의 교훈에 귀착점을 두고 있고, 전체적으로 불교적 색채가 농후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된 사상도 주로 인과응보와 윤회를 강조하고 숙명론을 말한다. 소설의 곳곳에는 생사와 윤회, 인과응보의 교리를 통해 불교적 색채를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옥통선사가 홍련에게 기만당한 진상을 알게 된 후 입적하며 남긴 「辭世頌」을 살펴보자.²⁶⁾

自入禪門無挂礙	불가에 들어선 이래로 걱정도 없이
五十二年心自在	오십 이년간 마음이 유유자적 하였네
只因一點念頭差	단지 순간의 생각이 잘못되어
犯了如來淫色戒	여래의 색계를 범하였네

23) 승려가 설법할 때 언행이나 사물을 통해 교의를 암시하는 비결을 의미한다.

24) 마른 해골은 고려 말 나옹 화상이 엮은 『懶翁集』에 있는 불교 가요의 「枯骸歌」에 등장하는데, 불도를 깨닫지 못하고 六道輪回를 반복하는 육체를 노래하면서 일순간 마음을 돌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25) 臧晉叔 編, 『元曲選』, 中華書局, 北京, 1979의 p.1346에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正末云)你聽。我也有一偈。(偈云)一把枯骸骨。東君掌上擎。自從有點汚。拋擲到今生。(唱)

26) 선사들이 임종 때 남기는 계송을 말한다.

你使紅蓮破我戒	그대가 홍련으로 하여금 파계하게 하였으니
我欠紅蓮一宿債	나는 홍련에게 하룻밤의 빚을 졌네
我身德行被你虧	내 일신의 덕행은 그대로 인해 낭패를 보았으니
你家門風還我壞	그대 집안의 풍파로 내 손해를 갚으리. ²⁷⁾

소설을 전·후반으로 구분하는 경계는 옥통선사가 입적하는 장면이며 그 전반부에는 홍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홍련은 불교의 색욕을 검증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소설은 불교의 금욕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속적이면서 색정적인 필치로 옥통선사의 파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凡心不動(속세에 대한 미련에 움직이지 않는다)’과 같은 과단성이 있는 종교의 교리와 대비되는 장면이다. 또한 간결하고 소박한 묘사를 통해 금욕과는 대립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승려와 기녀라는 특이한 신분의 배합을 통해 저자거리 독자들의 구미에 맞춰놓았다.

수행 52년의 덕이 높은 고승은 기녀 오홍련의 ‘꽃 같고 옥 같은 몸’을 보고 ‘춘심이 발동’하였다. 비록 옥통선사가 홍련과 사통한 사실이 알려져 치욕을 머금고 입적하였지만, 여전히 그는 불문을 어기고 인간의 세속적 욕망에 빠지고 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 작가는 이 대목에서 인과응보의 교리를 설법하며 옥통이 세속에 타락된 원인을 류선교가 음덕을 행하지 않은 것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 류씨 집안은 몰락하고 류씨의 딸까지 기생의 삶을 살다가 요절하게 된 것이며, 독자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과응보의 결과를 강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두 작품의 주제사상을 비교해서 보면, 잡극은 불교 교리를 선양하고자한 의미가 강하며 사람들에게 불교를 믿어서 세속의 고난으로부터 탈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월명화상이 세 번의 제도를 행하는 과정은 불교의 억겁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류취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 전생의 죄업을 갚도록 한 것은 속죄와 해탈의 의미를 생각게 한다. 이에 반해 소설의 작가 풍몽룡은 명대의 전통 유학가로서 전통적인 윤리 도덕규범과 세속적인 욕망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파계승의 이야기를 가미하여 인간의 본성과 불교의 금욕적인 면을 이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잡극에 비해 불가의 세속적 타락을 보다 적나라하게 묘사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금욕과 인과응보라는 불가의 교리에 귀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다.

5. 나오며

본고는 이수경의 원 잡극 「도류취」와 풍몽룡의 명대 소설 「월명화상도류취」를 통해 잡극과 소설이라는 두 장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도류취」 고사가 민간전설에서 잡극과 소설로 발전해 나간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그 원류와 전승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송대 항주에서 널리 전하던 도류취 고사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필기류를 통해 전승되었고, 원·명대에 이르러서는 희곡과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의 풍부한 소재로 발전

27) 馮夢龍, 『喻世明言』, 鼎文書局, 臺北, 1980.

해나갔다.

도류취 고사가 주로 문학작품으로 수용된 장르는 잡극과 소설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두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각 장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줄거리 구성에 있어서 두 작품은 각각의 장르가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차이 이외에도 활용한 고사의 수가 하나인지 둘인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명대에 이르러 前代의 여러 가지 소재를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창작한 시대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각 작품의 등장인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물형상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류취가 제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작품 간 특색과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은 불교라는 동일한 종교적 색채를 담고 있는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잡극 「도류취」는 원의 지배를 받던 당시 일반대중들에게 연극의 형식으로 불교의 교리도 선양하고 오락적 요소도 제공했던 작품임에 반해, 소설은 파계승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불교의 금욕과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나 다분히 명대 독서인의 흥미를 끌기 위한 상업적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라 평할 만하다.

중국 전통문학의 주도권이 소설과 희곡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남송 이래로 소설과 희곡은 늘 대중의 구미와 기호를 충족시키면서 상호 영향관계에 놓여 있었다. 때로는 희곡이 소설로 창작되고, 때로는 소설이 희곡으로 창작되기도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두 장르는 서로의 자양분이 되었고, 중국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두 장르 간 교차연구내지는 결합연구는 중국 근·현대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馮夢龍, 『喻世明言』, 鼎文書局, 臺北, 1980.
 馮夢龍, 『喻世明言』,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91.
 臧晉叔 編, 『元曲選』, 中華書局, 北京, 1979.
 張邦畿, 『侍兒小名錄拾遺』, 商務印書館, 北京, 1959.
 董 康, 『曲海總目提要』, 卷1,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59.
 胡士榮,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北京, 1980.
 田汝成, 『西湖遊覽志』, 浙江人民出版社, 1980.
 四水潛夫 輯, 『武林舊事』, 西湖書社, 杭州, 1981.
 徐 渭, 「玉禪師」, 『四聲猿』,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4.
 金聖嘆 評點, 『第五才子書施耐庵水滸傳』(제33회 평어), 中州古籍出版社, 1985.
 釋普濟 輯, 『五燈會元』,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05.
 靜·筠禪僧 編, 『祖堂集』, 中州古籍出版社, 2006.
 김순희, 「중국의 탈놀이 『大頭和尚』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김순희 역, 『중국 고전극 읽기의 즐거움』, 민속원, 2011.
 張全恭, 「紅蓮柳翠故事的轉變」, 『嶺南學報』, 第5卷 2期, 1936.
 張則桐, 「元雜劇“度柳翠”與文字禪」, 『中國典籍與文化』, 北京, 1999年 4期.

- 陳志國, 「論『玉禪師』的悲劇意蘊」, 『菏澤學院學報』, 濟南, 2001年 3期.
- 謝謙, 「論“度柳翠”雜劇的兩個系統」, 『清華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北京, 2002年 5期.
- 柳磊, 「月明和尚度柳翠原流考」, 『安徽廣播電視大學學報』, 合肥, 2003年 3期.
- 김순희, 「중국의 탈놀이『大頭和尚』 연구」,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05.
- 李春梅, 「簡析月明和尚與柳翠故事之流變」, 『青年文學家』, 齊齊哈爾, 2012年 17期.
- 項裕榮, 「『三言·月明和尚度柳翠』本事考補」, 『明青小說研究』, 廣東技術師範學院, 2016年 4期.
- 조상현, 「『鏡巖集』에 나타난 유불교류관(儒佛交流觀)의 특징」,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2집, 201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度柳翠, 月明和尚度柳翠, 李壽卿, 馮夢龍, 雜劇, 擬話本小說		
	영문	Doryuchi, Wolmyeonghwasang Doryuchi, Lee Soo-Gyeong, Poong Mon g-ryong, Jabgeuk, Yi Hua Ben novel		
<div>A Study on The Story about 'Doryuchi' Based on Accommodating Aspect of Genre</div> <div>Kim, Tae-Hong / Chun, Dae-Jin</div> <div><p>In this study, two genres called Jabgeuk and novel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rough 'Doryuchi' of Lee, Su-Gyeong's original Jabgeuk and 'Wolmyeonghwasang Doryuchi' of Poongmongryong's novel during Ming era. In this analysis, transition process of old story of 'Doryuchi' from folk tales to Jabgeuk and novel was observed and by comparing plot and contents of Jabgeuk and novel in which old story of Doryuchi was mainly accommodated, similarity and difference among each genre was reviewed.</p><p>Two works contain identical religious tone called Buddhism but while in 'Doryuchi', Buddhist doctrine was enhanced to general public in a form of drama and provided amusement, in novel, through a story of apostatized monk, human nature and abstinence, retributive justice of Buddhism are told apparently based on commercial purpose in order to attract interest of readers during Ming era.</p><p>Since southern Song Dynasty when initiative of Chinese traditional literature was transferred to novel and drama, novel and drama were always under mutual influencing relationship as a key nutritive element of further enriching Chinese literature in each work creation. Therefor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cross research or combined research of two genres would become an important resource of being able to understand modern, contemporary literature of China.</p></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태홍 / 金兌洪 / Kim, Tae-Hong		천대진 / 千大珍 / Chun, Dae-Jin
	소 속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duihong88@naver.com		wangcang@hanmail.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1월 30일		심 사 일 2018년 02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